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23일(수)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보건 환경 연구원	담 당 자	• 산업환경과장 추완중 ☎440-5621 • 담당자 이영주 ☎440-562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숨 쉬기 편한 환경특별시 인천, 우리가 만든다
 - 2022년 대기분야 관계기관 협업 회의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월 23일(수) “2022년 관내 대기배출시설 점검”을 위한 대기분야 관계기관 협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 군·구 대기배출사업장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2021년 대기배출원 오염도검사 및 아스콘 제조시설 특정 대기유해물질 검사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시설별 발생 예상 오염물질의 집중점검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최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이동 및 확산 영향범위 평가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시·군·구 관할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로 인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기배출원 관리의 엄중함을 아는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22년 시·군·구의 대기배출사업장 점검계획을 공유하면서, 숨 쉬기 편한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긴밀한 협업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였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회의가, 인천시 대기질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환경연구원도 시민의 삶을 파고 드는 연구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현장 사진

